

남자다운 남자가 되는 길, 남성성을 거부하라



‘남자답지 않을 권리’ 백상 세스페데스 지음

오늘의 남자는 불행하다. 아니 피곤하다. 직장에 똑똑한 여자들은 넘쳐나고 집에서는 아내의 위세가 만만치 않다. 어떤 이들은 이미 모계사회가 도래했다고 말할 정도다.

좀더 파고들어가면 남자들의 행태는 더 한심하다. 의미있는 관계 맺기에 서툰 나머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스마트폰에 빠져 있거나, 조약항 포르노 따위나 보여 욕망을 해소한다.

왜 이렇게까지 남자들이 변했는가. 도대체 남자들이 설 곳은 어디인가? 잘 웃고, 젠틀하며, 자신감이 넘친 데다 용감하기까지 했던 남자들은 더 이상 없다. 그런 남자들은 책이나 영화속에서나 볼 수 있는지 모른다. 주위에 그런 남자들이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엄밀히 말하면 ‘두 발 달린 진정한 남자’는 소설과정에 있다. ‘모성’ 사회를 주창하는 급진 여성주의자들, 동성애자, 반인종차별주의자들과 성과 위주의 자본주의의 체제가 남자들을 점점 변방으로 내몰다.

현대음악을 작곡하고 화가로도 활동 중인 프랑스 철학자 백상 세스페데스가 남자에 대한 불온한 보고서를 펴냈다. 강요된 남성성에 대한 철학적 도전을 담고 있는 ‘남자답지 않을 권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남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면 왜 남자들은 무력해졌을까. 극단적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시스템과 노동 가치를 잃어버린 환경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 변화된 여자들의 지위도 무시할 수 없다. 오늘날 많은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돈을 많이 버는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피임 등의 영향으로 성적 자기주체성도 강해졌다.

저자가 보기에 현대 남성들은 “삶을 ‘영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소모하고, 보이는 모든 것에 배포”할 뿐 더 이상 ‘수컷’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이 책은 의미가 없다. 앞서 열거했던 말들도 익히 들어왔던 얘기들이다. 저자는 건강한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적인 욕망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보기에 남성의 성적 욕망은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본연의 충동과 감정이 결핵이라는 제도 안에 박제되면서 자신과 상태를 속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저자의 이러한 성적 관련 주장은 다소 위험수위를 넘나든다. 남자들의 침실, 바지 속의 사정을 여과없이 드러내지만, 사실은 강요된 남성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소설가 수전 손택은 이렇게 말한다. “남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여성적 예감이고, 여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남성적 예감”이라고, 우리 안에 내재돼 있는 중성성을 인식하고 회복하자는 의미로 들린다.

남자는 결코 곱방으로 숨어들지 않았다. 패배하지도 않았다. 역으로 여자 또한 기세가 당당하거나 승리하지도 않았다. 당연시되었던 관습, 제도, 이데올로기의 집결을 벗겨내면 의외로 진실은 간단하다. 남자들은 남자답지 않을 권리가 있고, 여자들은 여자답지 않을 권리가 있다.

(명랑한 지성·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면 왜 남자들은 무력해졌을까. 극단적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시스템과 노동 가치를 잃어버린 환경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 변화된 여자들의 지위도 무시할 수 없다. 오늘날 많은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돈을 많이 버는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피임 등의 영향으로 성적 자기주체성도 강해졌다.

저자가 보기에 현대 남성들은 “삶을 ‘영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소모하고, 보이는 모든 것에 배포”할 뿐 더 이상 ‘수컷’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이 책은 의미가 없다. 앞서 열거했던 말들도 익히 들어왔던 얘기들이다. 저자는 건강한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적인 욕망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보기에 남성의 성적 욕망은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본연의 충동과 감정이 결핵이라는 제도 안에 박제되면서 자신과 상태를 속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저자의 이러한 성적 관련 주장은 다소 위험수위를 넘나든다. 남자들의 침실, 바지 속의 사정을 여과없이 드러내지만, 사실은 강요된 남성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소설가 수전 손택은 이렇게 말한다. “남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여성적 예감이고, 여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남성적 예감”이라고, 우리 안에 내재돼 있는 중성성을 인식하고 회복하자는 의미로 들린다.

남자는 결코 곱방으로 숨어들지 않았다. 패배하지도 않았다. 역으로 여자 또한 기세가 당당하거나 승리하지도 않았다. 당연시되었던 관습, 제도, 이데올로기의 집결을 벗겨내면 의외로 진실은 간단하다. 남자들은 남자답지 않을 권리가 있고, 여자들은 여자답지 않을 권리가 있다.

(명랑한 지성·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창조적인 독서 전략과 과학적인 책 읽기 담론

‘오직 독서뿐’ 정민 지음



“입으로만 외우는 영문서 공부, 읽는 시늉만 하는 원숭이 독서와 결별하라.”

고전학자이자 인문학자인 정민 교수가 펴낸 ‘오직 독서뿐’은 살아 숨쉬는 책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이 책에서 조선 최고 지식인들의 창조적인 독서 전략과 과학적인 책읽기 담론을 소개한다.

허균, 이익, 양운수, 안정복, 홍대용, 박지원, 이덕무, 홍석주, 홍길주 등 9명의 선인은 살아 숨쉬는 책읽기를 통해 저마다 학문적 성취를 이룬 지식인들이다. 이들이 취했던 독서 전략은 폭넓고 창의적이다. 한가지 뜻으로 한 책씩 읽을 것, 경전을 실용서처럼 읽지 말 것, 얇게 읽고 낫게 볼 것(얇게 보는 것은 대충 보는 것

이 아니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이다), 몰라서서 살펴볼 것, 한두 구절을 화두처럼 들고 앉아 공리하지 말 것 등 익히 알고 있는 독자와는 다른 방식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이들이 한결같이 강조하고 제시했던 공통점이 있다. 선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소리내서 읽는 남독의 위력’ ‘정독의 한 방편으로 권장되는 다독의 효과’ ‘의심과 의문을 통해 확장되는 생산적 독서 훈련’을 주장한다.

지은이는 서문에서 “책을 통해서만 생각은 깊어진다. 책 안에 원하는 대답이 있다. 책을 어찌 멀리할 수 있겠는가?”라며 책 읽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김영사·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대숲향기에 취해 느리게 느리게...

‘내가 만난 힐링 담양’ 구은숙 외 지음



‘대나무’ ‘메타세쿼이아’ ‘떡갈비’ ‘소쇄원’ ‘가사문학’ ‘슬로시티’ 등 담양을 대표하는 것들은 너무 많다. 그만큼 볼거리도 많고, 이야기거리도 많다.

담양을 찾은 평범한 사람들의 답사기를 엮은 책 ‘내가 만난 힐링 담양’이 나왔다. 이 책은 지난해 담양군 담양답사기 공모작 중 우수 작품을 뽑아 엮은 것으로 구은숙, 나귀현, 박호현, 한영이, 홍연오씨 등 27명의 글이 실렸다.

방문객들이 담양의 자연과 문화, 생태, 역사자원 등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낀 것을 투박한 글솜씨로 적었다. 하지만 그 진솔함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어떤 이는 담양에서 꽃날이 시원해지는 기억을 떠올렸고, 또 한 방문객은 대나무의 시원한 바람 소리에 매료되기도 했다. 담양에서 마음에 위안을 찾는 이도 있다.

공모전 심사를 맡았던 소설가 문순태씨는 “서툰 솜씨로 한 짝 한 짝 수를 놓듯 곱들여 쓴 글을 엮었지만 감동만큼은 결코 작가들의 글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관광재미의 녹음, 대나무와 설경, 정자 등 담양의 아름다움과 소박한 풍경을 담은 다양한 사진이 함께 실려 글을 읽는 재미를 더한다. 또 담양의 10경, 10정자, 10미를 비롯한 축제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을 별도로 소개하고 있어 담양을 살필 수 있는 종합안내서로도 손색 없다.

(심미안·2만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힐링로드... 걷고 또 걷는다

그림 속 괴물, 인간의 내면을 본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김성중·정규찬 지음



전국은 가히 걷기 열풍이라고 해도 될 만큼 새로운 길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다. 도심에서는 맛볼 수 없는 여유와 낭만을 즐기려 하는 이들이 늘어난 까닭이다.

전국 각지의 걷기 좋은 길을 모아 소개한 책이 나왔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힐링로드 170선’은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북한둘레길 등 170개 코스를 수록한 걷기 가이드북이다. 책을 펴낸 김성중·정규찬은 각각 아웃도어 잡지기자 출신과 사진작가이다.

책은 봄과 가을, 연인과 가족, 계절별, 주제별로 걷기 여정지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 여행 팁, 맛집 등의 정보도 담겨 있다. 특히 GPS를 바탕으로 한 지도에는 길잡이 길, 주의해야 할 곳 등도 표시해 놓아 걷기 여행 초보자라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

(휴머니스트·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신과 서정적 풍경사진을 담아내는 사진가로, 모두 걷기의 달인이다.

책은 봄과 가을, 연인과 가족, 계절별, 주제별로 걷기 여정지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 여행 팁, 맛집 등의 정보도 담겨 있다. 특히 GPS를 바탕으로 한 지도에는 길잡이 길, 주의해야 할 곳 등도 표시해 놓아 걷기 여행 초보자라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

(휴머니스트·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괴물이 된 그림’ 이연식 지음



제목부터 흥미롭다. 미술사 연구가 이연식이 쓴 ‘괴물이 된 그림’은 그림 속에 드러난 괴물의 모습을 통해 인간 내면을 들여다보게 한다.

저자에 따르면 괴물은 어느 시대에 존재했다. 형상만 다를 뿐 신화와 전설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형상만 다를 뿐, 추상적인 괴물의 존재에 형상을 입힌 건, 이에 탐닉했던 화가들이다. 저자가 그림 속에 비친 괴물을 소개하는 이유다.

저자는 “괴물은 단순히 외양이 흉

측하고 위협적인 존재를 말하기보다 나와 다른 것, 바깥 세계의 존재 혹은 위협할 정도로 매력적인 것을 일컫는다”고 말한다. 또한 괴물을 그린 그림이 단순히 그림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가 괴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어떤 집단이나 사회에서 괴물로 여기는 존재는 결국 그 집단과 사회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괴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보여준다.”

(은혜나무·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성공적인 학교는 학생 중심의 학교다

‘새 교육’ 스콧 니어링 지음



이상주의적인 진보주의자, 평화주의자, 반전운동가, 시민권 옹호자로 알려진 스콧 니어링은 진보적인 교육 사상을 연구하고 장려한 교육가였다.

그는 1910년, 그의 나이 27세에 미국의 가정주부용 월간지 ‘메이디스 홈 저널’에 미국 공교육에 대한 글을 썼다. 연재를 위해 미국 전역을 돌며 성공적인 공립학교, 홈스쿨, 보습학교 등을 취재했다.

‘프로그레시브 에듀케이션 시리즈’의 첫번째 ‘새 교육’은 스콧 니어링이 당시 월간지에 연재했던 글을 모아 엮은 책이다. 대안없는 비판, 물이해를 넘어서 실제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미국에서 그 시작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당시 미국은 초기 진보주의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고, 니어링은 이 시기에 성공적인 학교들을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책의 초판은 1915년에 나왔다.

저자가 생각한 성공적인 학교는 재학생 모두의 교육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교, 평가 중심적이지 않고 학생 중심의 학교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맞추는 학교, 최대한 모든 아이들에게 전념하는 학교를 방문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니어링과 당시의 진보주의자들은 학교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어린 학생들을 장래의 민주주의자로 성장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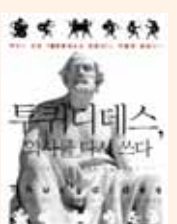
(우물이 있는 집·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신간

▲심장이 아프다=김남조 시인의 열일곱번째 시집 ‘심장이 아프다’가 출간됐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의 시인’으로 불리는 저자의 이번 시집은 첫 시집 ‘목숨’ 이후 60년만으로, 시인의 오랜 시력을 오롯이 기념하는 미학적 결실이다. 시집의 제목이자 시의 제목이기도 한 ‘심장이 아프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별자들의 아픔을 시작 언어들로 승화시킨 시인의 진심 어린 전언이다. (문학수첩·1만원)

▲투퀴디데스, 역사를 다시 쓴다=투퀴디데스와 그의 저작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고대 헬라스(그리스) 시대 역사서 가운데서도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역사 서술로 인해 2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을 매혹하고 있는 역사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널드 케이건은 ‘투퀴디데스, 역사를 다시 쓴다’를 통해 투퀴디데스의 역사 서술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투퀴디데스의 핵심 주장 여섯가지의 진실을 파헤친다. (휴머니스트·2만원)

▲철학의 발견=‘철학자는 어떻게 철학을 다시 발견했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살아있는 철학 강의를, ‘철학의 발견’은 철학을 다시 정의하는 책이 아니라 철학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려는 책이다. 서울시와 성공회대가 공동으로 기획한 시민강좌 ‘희망의 인문학’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새로 엮었다. 저자 장건익은 4년간 진행된 이 강좌에서 만난 수강자들로부터 철학을 처음부터 다시 배웠다고 고백한다. (시월의책·1만5000원)



▲지구를 이승이라 불러줄까=‘문학동네 시인선’ 42권. 고흥렬 시인의 아홉번째 시집이다. 1979년 ‘현대문학’에 ‘장자(莊子)’를 발표하며 시단에 나온 26세의 시인이 시를 삶으로 삼아온 지도 어느덧 34년이 흘렀다. 올해 예순이 된 고흥렬은 아홉번째 시집을 “그곳으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내가! 이곳으로 걸어올 수 없는 너에게”로 시작한다. (문학동네·8000원)

▲고양이 울음=첫 장편소설 ‘9월이 영원히 계속되면’으로 화려하게 등단한 늦깎이 작가 누마타 마호카의 ‘고양이 울음’이 출간됐다. 인간과 고양이의 관계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면서 누마타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미스테리에서 일반 소설로 접근한 작품이다. ‘몽’이라는 고양이를 통해 보여주는 삶과 죽음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생명을 바라보는 강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일본에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서울문화사·1만2800원)

▲간헐적 단식, 몸컨트롤처럼=짧은 단식으로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성장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는 간헐적 단식법. 그러나 기존 간헐적 단식법들은 서양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내 1호 간헐적 단식에 성공하며 화제가 된 조경숙씨는 3년전부터 다양한 간헐적 단식법들을 하나하나 실험하며 효과를 체험했다. 그는 기존 간헐적 단식법들의 장단점을 분석해 최상의 간헐적 단식법 ‘몸컨트롤’을 만들어냈다. (위즈덤하우스·1만3800원)

▲포퓰의 즐거운 정원=일 중독자 하나로써가 서투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포퓰이를 쫓아간 곳은 정원박물관. 하나로써는 어느새 성큼성큼 걸어다니며 즐거워한다. 바쁜 일상 때문에 잊고 살았던, 소중한 무언가를 새로이 발견하게 하는 포퓰의 마법같은 정원 여행.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여행을 계획한 이들에게 여행과 감동의 재미를 높여주는 그림동화책이다. (ACN·1만2000원)

▲책식은 사랑이다=화가이자 작가이며, 완전 채식주의자인 루비 로스의 채식 그림책, ‘공장식 축산 농장’이 이어 동물원, 동물 실험, 동물 서커스, 동물 경주, 사냥 등 동물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책식은 곧 사랑’이라는 사실을 일러준다. (두레아이들·1만2000원)

▲하늘로 가는 우체통=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다혜네 가족. 그 일로 마음에 병이 들어 정신을 놓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다혜 엄마. 다혜이를 그리워하며 편지를 쓰고, 놀랍게도 1937년에 ‘하나

로’라는 사람이 쓴 답장이 도착한다. 아들을 먼저 떠나 보낸 엄마와, 일제 강점기에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꽃병이 할머니는 편지를 주고 받으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한다. (주니어김영사·9500원)

▲포포와 따라쟁이 친구들=KBS TV 애니메이션 ‘아기 종벌레 포포’ 시리즈가 그림책으로 나왔다. 1권 ‘포포와 따라쟁이 친구들’, 2권 ‘내가 다 먹을 거야!’, 3권 ‘엄마 아빠는 동생만 애빠해’. 드넓은 숲과 호수 속에서 천천히만하게 뛰노는 벌레 친구들은 아이들에게 멋진 친구가 되어준다. (푸른숲주니어·각 권 1만원)

▲토도의 보물=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작가 헬메 하이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보물을 찾는 게 소원인 모험심 많은 토도. 우연히 호수가에 떠내려 온 유리병 편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 토도가 찾아낸 보물은 무엇일까? 책을 통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존재의 가치를 일깨워 주며 자신의 보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하림출판사·1만1000원)

어린이 책꽂이